DOI: https://doi.org/10.28977/jbtr.2010.10.27.132

히브리서에 사용된 추론을 나타내는 접속사의 번역

정창욱*

1. 서론

히브리서에는 추론을 나타내는 접속사(inferential conjunction)가 여섯 개 사용되고 있다: οὖν, διό, ἄθεν, ἄρα, τοίνυν, τοιγαροῦν. 이 접속사들 중에서 마지막 세 개는 1회나 2회만 사용되어 주목을 끌지 못한다.[1] 나머지 세 개 중 οὖν은 추론적 접속사 가운데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접속사로 히브리서에 열두 번 등장하며,[2] '그러므로'라는 추론적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또 다른 접속사 διό는 아홉 번 사용된다. 마지막의 ἄθεν은 비록 원래 품사는 부사지만 추론적 접속사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히브리서에 사용된 여섯 번 모두 추론적 접속사로 기능한다.[3]

이상에서 보듯이, 히브리서에서 διό와 ἄθεν은 각각 아홉 번과 여섯 번 등장하여 둘을 합쳐 열다섯 번 사용되어서 열두 번만 쓰인 οὖν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추론적 접속사들- 곧 διό와 ἄθεν-을 합한 사용 횟수가 οὖν의 사용 횟수보다 더 많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골고루 사용된 세 가지 접속사는 각기 독특한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 사용된 것일까? 다시 말해, 이 세 가지 접속사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고 서로 다른 의미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

* 총신대학교 교수, 신약학. 이 논문은 2010년도 총신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추론적 혹은 전이적(transitional) 접속사로 사용되는 ἄρα는 두 번(4:9, 12:8) 나타나는데, 4:9에서는 추론적으로 사용되어 모든 한글 성경은 추론적 의미로 번역한다. 하지만, 12:8에서는 추론적 접속사가 아니다. 신약에서 각각 3회와 2회만 사용되는 τοίνυν, τοιγαροῦν은 히브리서에 한 번씩(13:13; 12:1)만 등장하며, 이 두 곳에서 이 접속사들은 분명하게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

2) 추론의 접속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접속사는 신약에서 499번 사용되고 있는데,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전이를 나타내기 위해(transitional)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역접의 관계를 나타내는 반의적(adversative)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3) BDAG에는 이 단어가 부사로 표시되어 있으며, Liddell & Scott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 부사로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BDR이나 BDF는 이 단어를 추론적 연속성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명명한다. Louw & Nida는 이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며, 다만 이 단어와 함께 묶어 다루고 있는 단어들이 전치사인 까닭에 마치 전치사로 취급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상의 참고 서적의 자세한 서지 정보를 위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라.

까? 아니면, 특별한 차이점 없이 단순히 어휘 사용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장치로서 문체의 다양성을 나타내 주기 위해 사용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추론의 의미를 전달하는 세 가지 접속사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번역되어 있으며 그 번역들은 엄밀하고 정확한 것인가?[4]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히브리서의 이해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 접속사들이 히브리서에서 사용된 경우들을 연구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세 접속사의 사용에 대한 기본 사항

앞서 지적한 대로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세 개의 접속사의 사용은 히브리서에서 특이하게 나타난다. 그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우선 기본적인 통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διό는 신약에서 총 53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에 아홉 번 등장하여 사용 비율이 아주 높다.[5] 그 반면에 신약에서 499번 사용된 οὖν은 히브리서에서 열두 번만 사용된다. 사실 히브리서의 두 접속사 간의 사용 비율은 신약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볼 때 독특하다. 예를 들면, 로마서의 경우 접속사 διό는 여섯 번 등장하는 반면에 οὖν은 45회 사용된다. 로마서 외에 이 두 접속사가 신약의 다른 책들에서 사용된 빈도수를 살펴보아도 히브리서의 특이성이 쉽게 드러난다.[6] 그 독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ὅθεν의 용례다. ὅθεν은 신약에 총 15회 사용되며 그 중 여섯 번이 히브리서에 나타난다. 이 접속사는 나머지 신약 전체에서 아홉 번이 등장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그것으로

4) 헬라어 접속사의 한글 번역은 수월치 않은 작업이다. 특별히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번역은 난해하여 많은 경우에 한글 성경에서 생략되곤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 「성경원문연구」 5 (1999), 57-79를 보라. 추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상대적으로 한글로 번역하기 수월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접속사도 생략되는 일이 생기곤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보라.

5)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사용횟수의 17%에 해당하는데, 히브리서의 분량을 생각할 때 대단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의 통계는 Bible Works에 근거한 것이다.

6) 고린도전서의 경우, διό는 2번 등장하는 반면, οὖν은 19번 사용된다. 사도행전도 둘 사이의 편차가 아주 심해서, 전자는 여덟 번 후자는 60번이 사용된다. 고린도후서와 에베소서가 히브리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이 두 책에서 세 번째 접속사인 ὅθεν은 사용되지 않는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전자가 9번, 후자가 열 번 쓰여서 전자의 비율이 아주 높음을 알 수 있다. 에베소서도 이와 유사하게 전자는 다섯 번 후자는 일곱 번이 사용된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와 에베소서에는 ὅθεν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부터'라는 뜻을 나타낸다.[7]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모두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접속사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관찰은 세 추론적 접속사의 고른 사용이 히브리서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임을 입증해 준다. 그렇다면, 각 접속사는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사용되었고 그것들은 어떻게 이해되고 번역되었는가?

3. 세 접속사의 용법 연구

각 접속사의 히브리서에서의 용법을 다루기 전에 각 접속사의 기본 의미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가 개별적 구절에서의 용례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접속사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밝혀보고 그 후에 히브리서에서의 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8]

3.1. διό

3.1.1. 접속사의 사전적 의미

이 접속사는 원래 전치사 διά와 관계대명사 중성 단수 목적격 ὅ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다.[9]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설명 때문에'(for which account)를 나타내어 앞에서 언급한 것 때문에 생기는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단순히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데 그치지 않고 추론적 의미가 자명함(self-evident)을 나타내 준다.[10] '그러므로'라는 의미를 나타내기에 선행 논의

---

7) ὅθεν은 마태복음에 4번 사용되는데 그 중 한 곳 곧 14:7에서만 '그러므로'라는 의미로 쓰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곳에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12:44; 25:24,26. 누가복음에는 한 번만 등장하며 그 의미는 '그곳에서부터'다. 사실 눅 11:24는 위에 적시한 마 12:44의 평행구절이다. 그 외에 사도행전의 세 구절에서 사용되는데 그 중 두 곳(14:26, 28:13)에서는 '그곳에서부터'를 뜻하고 한 구절(26:19)에서만 '그러므로'라는 의미가 가능하나, 여전히 다른 의미일 가능성이 높아서 아마도 'after that'을 나타낼 수도 있다. 마지막 하나는 요한일서에 등장하는데, 의미가 애매하여 추론적 의미보다는 '이로부터'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8) οὖν의 용법이 다양하고 복잡함으로 편의상 비교적 단순하게 사용되는 접속사들을 먼저 다루고 οὖν은 마지막에 다룰 것이다.

9) H. George Liddell & R. Scott,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1958), 432. 주지하는 대로, 전치사 마지막의 모음은 뒤따라 나오는 단어의 첫 글자가 모음일 경우에 탈락한다. 그래서 διὰ ὅ가 διό로 변형될 수 있었다.

10) W. Bau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F.W. Danker, rev. and ed.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250.

의 결과를 표현해 주며, 이때에 비교적 강조하는 의미에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11] 따라서 이 접속사는 추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헬라어 접속사보다 더 분명하게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 그래서 Louw & Nida는 이 접속사의 의미로서 '바로 이런 까닭에'(for this very reason)를 제시한다. 요약하자면, 접속사 διό는 기본적으로 '그러므로'(therefore)나 '이런 까닭에'(for this reason)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 자명한 사실을 나타내 주고, 약간은 강조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1.2. 히브리서에서의 용법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번역 성경들은 이 접속사와 관련하여 위에 제시한 사전적 의미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접속사 διό는 히브리서에서 다음 구절들에 등장한다: 3:7, 10; 6:1; 10:5; 11:12, 16; 12:12, 28; 13:12. 이 중 거의 모든 구절에서 이 접속사는 생략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모두 추론적 연결을 나타내는 의미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한글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개역』과 『개역개정』은 대부분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고 드물기는 하지만 보다 분명하게 앞 부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므로'라고 번역한다. 11:12의 경우에 『개역』과 『개역개정』 둘 다 '이러므로'라고 번역하고 있고, 흥미롭게도 11:16의 경우에는 『개역』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했으나 『개역개정』에는 '이러므로'로 바뀌었다.[12]

『공동』과 『공동개정』의 접속사 διό의 해석은 관심을 끈다. 이 두 성경은 이 접속사를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다양한 한글 접속사로 번역한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10:5와 앞에서 다룬 11:16의 경우에 『공동』과 『공동개정』이 '그래서'라고 번역하며,[13] 13:12에서 『공동』은 '이와 같이'라고 번역하여 앞 부분과의 인과성을 보다 분명하게 표시해 준다.[14]

다양한 번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두 성경 곧 『공동』과 『공동개정』은 다른 한글 성경들과는 달리 히브리서 12:28의 맨 처음에 사용된 이 접속사를 유일하게 번역하지 않고 생략해 버린다:

>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15]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

11) Johannes P. Louw & Eugene A. Nid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y, 1988), 89.47.

12) 『표준』, 『새번역』, 『공동』, 『공동개정』은 '그래서'라고 번역한다.

13) 10장 5절에서 NRSV는 '결과적으로'(consequently)라고 번역한다.

14) RSV, ESV는 이 접속사를 'so'(그래서)라고 번역하며, NIV는 'and so'라고 이해한다.

15) '차지했으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다. 『개역개정』

>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경건한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예배를 드립시다.(『공동』)[16]

왜 이 두 한글 성경은 이 부분에서 접속사를 생략한 것일까? 우선, 『공동』이나 『공동개정』이 접속사를 다른 성경보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두 성경은 접속사를 한글 문맥에 잘 들어맞도록 다양하게 해석하려고 시도하지 생략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왜 번역자들은 접속사를 아예 빼버리려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쉽지 않지만 전후 문맥을 살펴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그러므로'를 28절에 넣게 되면 그 앞 부분과 28절의 내용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게 되는데, 28절 상반부의 내용—"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이 그 앞 부분의 내용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면서 동시에 다음 권고의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구태여 번역하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 것 같다. 사실 28절과 그 전 부분의 관계는 추론적 접속사를 가지고는 자연스럽지 못해 보인다. 특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차지했으니"라는 부분은 그 앞에 나온 내용과 어떤 의미에서는 대조를 이루어서, 접속사를 쓴다면 오히려 '하지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이런 연유로 공동 번역과 그 개정판은 접속사의 번역을 생략해 버린 것으로 드러난다.[17] 하지만, 『개역개정』처럼 접속사를 넣어도 전후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됨으로 생략하기보다는 포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18]

도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런데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 진행 중인 동작(on-going action)을 나타내 주어서, 과거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표준』과 『새번역』이 이 분사를 현재로 해석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사실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분사를 현재 혹은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한다. 현재 분사의 의미를 한글로 제대로 반영하려면 '받아 가지고 있으니' 혹은 '차지하고 있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헬라어 현재 분사를 한글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은걸, "국역 성경의 헬라어 분사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새번역』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5 (2009), 96-110을 보라. 또한 현재 분사의 의미와 번역과 관련해서는 정창욱, "누가복음에 사용된 헬라어 현재분사의 이해와 번역", 「신약연구」 8:4 (2009), 611-638을 보라.

16) 『개역개정』과 비교하도록 그 번역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7) 영어 성경 중에서는 CEV와 NLV는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있으며, Bible in Basic English의 경우는 'then'으로 이해한다. 『공동』과 『공동개정』의 번역은 아쉬움이 남는다. 접속사 '그러므로'를 넣어도 흐름이 크게 어그러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경우에 설명이 요청되기는 하지만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18) 이 접속사가 논의의 새로운 양상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추론적 접속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Craig R. Koester, *Hebrews:*

요약하자면, 영어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한글성경에서도 접속사 διό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유사한 의미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사전적 의미가 본문에서 잘 드러나고, 번역 성경들이 그것을 잘 반영해 주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3.2. ὅθεν

3.2.1. ὅθεν의 사전적 의미

관계부사이면서 동시에 접속사이기도 한 ὅθεν은 기본적으로 '어디로부터'(from where) '그런 것으로부터'(from which)라는 뜻을 전달해 준다.[19] 하지만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 특별히 문장의 맨 처음에 사용되면 '그러므로', '따라서'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런데 Louw & Nida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추론적 의미를 언급하지 않고, 위에 제시한 기본적 의미와 더불어 '~때문에'(because of)라는 의미만 제시한다.[20] Louw & Nida의 견해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들의 문제는 이 전치사를 유사한 전치사들- ἀπό, ἐκ, παρά-와 함께 다루면서 무리하게 이 네 개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모두 'because of'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본 데 있다.[21] 그러므로, BDAG의 견해를 따라서, 이 부사는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for which reason)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절의 첫 부분에 사용되면 '그러므로'(therefore) 혹은 '따라서, 이 때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2001), 557. 아니면, 그 앞 부분의 논의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린다고 볼 수도 있다. S. J.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ts: Evangelical Press, 1984), 400.

19) 앞서 언급한 대로, BDAG, 694는 이 단어의 품사를 부사로 표현을 하며, Liddell & Scott, 1200은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사로 지칭하는 반면에, BDR 451.6과 BDF 451.6은 이 단어를 접속사로 이해한다. BDR은 F. Blass, A. Debrunner and R. Rehkopf의 독일어 책,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 17th ed., 1990)을 지칭하며, BDF는 독일어 원판의 영어 번역본을 가리킨다. 저자들의 성의 첫 글자를 따서 표시해 주는데 영역본의 마지막 F는 R. Funk를 지칭하며, 영문 번역본의 저서명은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이다.

20) *A Greek-English Lexicon*, 84.11, 89.25. 그들은 마태복음 14:7에서 이 접속사가 'because of'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since he had promised with an oath.'(왜냐하면 그가 맹세로 약속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전치사 ὅθεν은 앞의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 구절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래서 그는 맹세하여 약속했다.' 이상과 같은 연결이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고, 사전적 의미에도 부합한다.

21) Louw & Nida도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이 네 가지 단어들에 내포되어 있는 공통점을 찾는 데 주목한다. 그들의 접근법은 유사성이 존재하는 단어들을 하나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같은 방식이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접속사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사장되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문에'(hence)라는 뜻을 갖는다고 이해해야 한다.

3.2.2. 히브리서에서의 용법

신약에서 모두 열다섯 번 사용된 이 접속사는 히브리서에서 여섯 번 등장하여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 2:17; 3:1; 7:25; 8:3; 9:18; 11:19. 이것들 중에서 마지막을 제외한 나머지 예에서 이 접속사는 사전적 의미와 잘 어우러지게 '그러므로' 혹은 '그런 까닭에'등의 의미로 분명하게 사용되었다. 모든 한글 성경과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다섯 구절에서 이 접속사의 추론적 의미를 제대로 반영해 준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인 11:19는 주목을 끈다. 이 곳에서 사용된 접속사를 『개역』과 『개역개정』은 추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 λογισάμενος ὅτι καὶ ἐκ νεκρῶν ἐγείρειν δυνατὸς ὁ θεός, ὅθεν αὐτὸν καὶ ἐν παραβολῇ ἐκομίσατο.
>
>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개역개정』)
>
> Hebrews 11:19 He considered that God was able to raise men even from the dead; hence, figuratively speaking, he did receive him back.(RSV)

『개역』이나 『개역개정』 이 두 한글 성경의 번역에 따르자면,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ἐκ νεκρῶν과 연결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이해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개역』이나 『개역개정』과는 달리 『표준』과 『새번역』을 비롯하여 『공동』과 『공동개정』 등은 모두 '그러므로'라고 번역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새번역』)[22] 그런데 문제는 접속사 ὅθεν이 히브리서의 나머지 구절에서 『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이 해석한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23] 이 접속사는 이 구절에서 단순히 '그러므로'라는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데서 좀 더 세밀하게 분류하자면 언제나 '(앞에 언급한 내용에 근거하여) 그 결과(그래서=so that)'라는 의미로 사용된다.[24] 물론,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 중에서 이렇게 세

---

22) 사실 『새번역』 등의 문장은 뒷부분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라는 문구를 넣어서 문장을 통하게 해 주는데 이것은 ὅθεν이 아니라 문장에 맞게 의역을 한 것이다. 문법적으로 분명하게 『새번역』은 접속사를 '그러므로'라고 번역한다.

23) P.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93), 603. 히브리서 이외의 다른 성경에서의 용례를 위해서는 위의 각주 7번과 19번을 보라.

밀한 의미로 번역한 경우는 많지 않으나, 대부분 그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추론적 접속사 '그러므로'로 번역한다.

영어 성경 중에서 NRSV를 비롯한 몇 개의 성경은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눈여겨 볼 것은 NRSV가 이 접속사가 사용되는 7:25에서 '그러므로'(therefore)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영어 성경과는 달리 '결과적으로'(consequently)를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사실 NRSV는 이 접속사가 사용되는 여섯 구절에서 'therefore' 'consequently' 'hence' 등의 유의어들을 번갈아 쓰고 있다. 그런데 유독 11:19에서는 이 접속사의 번역을 생략해 버린다. 이것은 이 문맥에서 접속사의 추론적 의미가 본문의 의미를 잘 통하게 해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론적 의미로 접속사를 해석해도 본문의 논리적 흐름은 무리없이 잘 흘러가게 되어 있다.[25]

게다가, 이 접속사의 존재는 번역되지 않고 지나갈 수도 있는 γάρ나 οὖν의 경우와는 달리 분명하게 추론적 혹은 결과적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더욱 그렇다. 주목해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접속사가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추론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일이 극히 드문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언제나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26]

이상과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에, 이 접속사는 단순히 '그러므로' 혹은 '이러므로'라고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러니' 등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11:19의 경우는 더욱 분명하게 '그 결과'라고 해석하여 본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상징적으로 이삭을 돌려받았다."[27] 이러한 주장은 다른 구절들의 경우에도 잘 입증이 된다.

---

24) Koester, *Hebrews*, 491. 보다 최근에 O'Brien 역시 이 접속사를 연속적(consecutive)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책, *The Letter to the Hebrews* (Grand Rapids/Cambridge: Eerdmans, 2010), 424, nt. 169를 보라.

25) 이 접속사는 분명하게 추론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H.W. Attridge는 주장한다. 그의 책, *The Epistle to the Hebrews* (Philadelphia: Fortress, 1989), 335.

26)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이 전치사가 주로 '그것으로부터'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위의 각주를 보라.

27) 비록 한글 성경의 번역들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접속사가 보여주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가운데서)'라기보다는 '죽음의 영역으로부터'라고 보아야 정확하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그곳으로부터'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죽음으로부터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엄밀하다. 물론, BDAG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나타낼 가능성을 제기하기는 하지만, 보다 엄밀하게 '죽음(의 영역)에서'라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한다. J. Calvin, *Commentarius in Epistolam ad Hebraeos* (Geneve: Librairie Droz, 1996), 199를 보라.

3.3. οὖν

3.3.1. οὖν의 사전적 의미

이 접속사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접속사 중에 하나로, 모두 499번 등장하며, 신약의 각권에 골고루 사용되고 있고 히브리서에는 12번 등장한다. 그런데 이 접속사는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만 사용되지는 않는다. BDAG에 따르면, 이 접속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의미를 전달해 준다:[28] 1) 추론적 의미, 곧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따라서,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접속사가 소개하는 것은 그 앞의 것들의 결과이거나 거기에서 나온 추론을 가리킨다; 2) 어떤 이야기의 계속을 나타내는 표시어로서 영어로는 'now'나 'then' 등으로 표현: 이 때에 어떤 주제로 다시한번 되돌아가는 것을 나타내거나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거나, 혹은 반응을 나타내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3) 강의적 용법으로 '분명히, 확실히' 등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 4) 역접의 의미를 전달하여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의 의미를 나타내 준다.[29] 이 네 가지 용법 중에서 마지막 두 개는 논란의 대상이다. 하지만, 신약의 여러 예들에서 이 접속사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가장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이 접속사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3.3.2. 히브리서의 예문 연구

접속사 οὖν은 히브리서의 다음 구절들에 등장한다: 2:14; 4:1,6,11,14,16; 7:11; 8:4; 9:1,23; 10:19,35; 13:15. 이 구절들을 번역하면서, 『개역』과 『개역개정』은 몇 군데에서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무시하고 넘어간다: 2:14; 7:11; 8:4; 9:1. 이것은 한글의 특성상 영어 성경의 경우 'now'나 'the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없을 때 생략하는 경우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문맥이 분명하게 추론적 의미 곧 'therefore'를 의미하는 데도 한글 성경이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는 경우에 생긴다. 그런 경우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히브리서 2:14

위에 언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를 이 접속사가 첫 번째로 사용된 히

---

28) BDAG, 736-37.

29) Louw & Nida는 BDAG의 네가지 용법 중에서 두 번째 용법을 제외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89.50, 91.7, 89.127. 하지만, 실상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는 듯한 설명을 제시한다. 세 번째 강의적 용법에 두 번째 용법을 포함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Louw & Nida는 οὖν의 용법을 모호하게 설명한다.

브리서 2:14에서 발견할 수 있다:

> ἐπεὶ οὖν τὰ παιδία κεκοινώνηκεν αἵματος καὶ σαρκός, καὶ αὐτὸς παραπλησίως μετέσχεν τῶν αὐτῶν, ἵνα διὰ τοῦ θανάτου καταργήσῃ τὸν τὸ κράτος ἔχοντα τοῦ θανάτου, τοῦτ' ἔστιν τὸν διάβολον,
>
>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개역개정』)
>
> Since, therefore, the children share flesh and blood, he himself likewise shared the same things, so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the one who has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NRSV)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한글 성경 중 어느 하나도 헬라어 성경에서 이 구절의 앞 부분에 있는 접속사 οὖν을 번역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이 접속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일까?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N)KJV와 ERV는 이것을 'then'으로 번역한 반면에 NASB와 (N)RSV, ESV, ISV, Darby Bible 등은 'therefore'로 이해한다. 그 반면에 NIV는 이 접속사를 생략해 버린다. 주석가들은 추론적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오브라이언(O'Brien)은 이 접속사는 추론적 접속사로서 '그러니'(so then)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30] 그 앞 구절들의 논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 형제들 간의 유대를 확립해 주며 그런 유대에 근거하여 혹은 유대 때문에 14절의 내용이 굳게 세워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2:14 이전 구절에 나타난 구약 인용의 내용들에 근거한 결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접속사를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논리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앞 뒤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한글 성경들은 접속사에 대해 침묵한다. 한글의 특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이 접속사가 사용된 또다른 구절인 4:14에서 앞 뒤 문맥상 '그러므로'라고 구태여 번역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구절의 앞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이 구절은 앞 구절의 주장에 근거한 결론으로 보기가 어렵다.[31] 이와 같이 구태여 접속사를 번역할 필요가 없는 데도 번

30) O'brien, *Hebrews*, 113, nt. 155. Ellingworth 또한 유사하게 이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서 결론을 도출해 낸다고 이해한다. *Hebrews*, 170-171.

역을 추론적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32] 만일 그렇다면,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2:14의 경우에 오히려 추론적 접속사로 앞 구절과 연결해야 타당하다.

(2) 히브리서 9:1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또다른 구절은 9:1이다:

> Εἶχε μὲν οὖν καὶ ἡ πρώτη δικαιώματα λατρείας, τό τε ἅγιον κοσμικόν.
>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개역개정』)
> Now even the first covenant had regulations for worship and an earthly sanctuary.(NRSV)

NRSV처럼 NIV는 이 구절을 'now'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마치 접속사 οὖν의 번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접속사 οὖν이 아니라 μὲν οὖν이다. 이 헬라어 어구는 역접의 의미를 전달하는 반의적 용법(but, 그러나)을 전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앞 부분인 8:7에서 언급한 '옛언약'이라는 주제로 되돌아가는 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다.[33]

---

31) 이 부분에서 접속사 οὖν은 추론적 의미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어떤 주제의 논리적 단절(interruption) 후에 다시 그 주제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다(resumptive conjunction). 따라서 이 부분에서 '그러므로'라고 번역해야만 할 이유는 없다. Attridge, *Hebrews*, 138. 또한 Ellingworth, *Hebrews*, 266을 보라.

32) 그런데도 『개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분명하게 번역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개역』이나 『개역개정』과 NIV의 상관관계다. 이 접속사의 번역과 관련하여 이 두 한글 성경과 NIV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우선 접속사 οὖν을 번역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 경우를 살펴보자면, 그런 현상이 『개역개정』에서 2:14, 7:11, 8:4, 9:1 등 네 곳에서 발생하는데 놀랍게도 NIV의 경우에 이 네 곳 모두에서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고 무시해 버린다. 이러한 둘 사이의 연관성은 이 접속사를 번역하는 경우에도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는 앞서 언급한 4:14로서 NRSV와 NKJV, ASV, ESV, ERV, Amplified Bible 등은 이 접속사를 'then'으로 번역하는 반면에 NIV는 'therefore'라고 분명하게 추론적 의미로 번역한다. 그리고 『개역』과 『개역개정』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한다. 그 반대로 2:14의 경우에는 NRSV와 NASB는 'therefore'로 NKJV는 'then'으로 번역한 반면, NIV는 이 접속사를 무시했고 『개역』과 『개역개정』도 이것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7:11에도 나타나서 이번에는 (N)KJV는 'therefore'로, NRSV는 'now'로 번역한 반면에 NIV는 번역에서 접속사를 생략해 버리는데 한글 성경 중 『개역』과 『개역개정』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개역개정』이 이 접속사의 번역을 위해 NIV 성경에 의존했다는 것을 입증해 주지는 않는다. 아마도 접속사가 사용된 문맥에 대한 이해가 두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치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33) Ellingworth는 μέν οὖν이 이 부분에서 역접의 의미를 전달해 주지 않고 원 주제로 돌아가는 회귀적인(resumptive) 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Hebrews*, 420. 윌리엄 레인은 μέν οὖν이 주제의 전환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레인, 『히브리서 9-13』,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7), 74; William L. Lane, *Hebrews 9-13* (Dallas: Word Book, 1991).

NIV는 NRSV와 함께 이것을 'now'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οὖν의 번역이라기보다는 μέν의 번역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 내용상의 대조를 이루기도 하는 11절의 접속사 δέ와 연결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4] (N)KJV가 'then'으로 번역한 이유는 2:14에서 접속사 οὖν을 'then'으로 번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μέν보다는 접속사 οὖν을 '그러면'이라는 뜻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아니면, μὲν οὖν을 BDAG의 설명대로 'now'로 이해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 11절의 δέ와 연결된다. 이런 해석은 11절의 하늘의 성소가 1절의 땅의 성소와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당성을 갖는다. 어떤 경우든지, 'now'로 번역한 부분은 οὖν이라기보다는 μέν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으면 μὲν οὖν의 번역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9:1의 οὖν은 모든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μὲν οὖν을 δέ와 연결된 기능으로 보아서 이해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앞의 μὲν οὖν은 번역되지 않곤 한다. 따라서 9:1의 한글 성경의 번역은 정당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다만, μὲν οὖν…δέ의 관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대조의 관계를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4. 결론

히브리서에 사용된 추론적 접속사에 대한 이상의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세 개의 추론적 접속사 곧 διό, ὅθεν, οὖν 중에서 διό가 사전적 의미에서 추론적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다. 이러한 이해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 잘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12:28의 경우 『공동』과 『공동개정』은 이 접속

34) G.W. Buchanan은 히브리서 9:1-10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뒤따라 나오는 구절들의 내용과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3절의 δέ가 1절의 μέν과 짝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To the Hebrews/ and Epistles of James Peter, Jude*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72), 139-140. Ellingworth는 9:1-10의 내용과 11-22절 사이의 내용이 대조되기는 하지만, 문법상으로 1절의 μέν과 11절의 δέ가 대조를 나타내기 위해 연결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지적한다. 그의 책, *Hebrews*, 420을 보라. 흥미롭게도 Westcott는 1절의 μέν οὖν이 6절의 δέ와 연결된다고 아무런 설명 없이 단순히 기술한다. *The Epistle to the Hebrews: The Greek Text with Notes and Essays* (Grand Rapids: Eerdmans, 1980), 243. 하지만, 둘 사이의 연결은 내용상의 대조를 고려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1절의 이 땅위의 성소와 11절의 하늘의 성소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Koester, *Hebrews*, 393을 보라. 또한 Stanley, "Hebrews 9:6-10: The 'Parable' of the Tabernacle", *NovT* 37 (1995), 385-399을 참조하라.

사의 번역을 생략하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다음 번역시에 수정되어야 바람직하다.

2. ὅθεν은 히브리서 이외의 신약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로부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에, 히브리서에서는 추론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개역개정』은 11:19에서 이 접속사를 '…로부터'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문장전체를 의역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접속사는 이 구절에서 추론적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음번 번역 작업에서는 그와 같이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좀 더 다양하게 이 접속사를 '결과적으로' 혹은 '그래서' 등으로 번역하려는 시도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3. οὖν은 그 용법이 다양하여 용법을 결정하는 것이 때로는 수월치 않으며 따라서 주의를 기울여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함이 드러났다. 아울러 한글 성경의 경우 생략해버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론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번역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세 가지 접속사의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더 엄밀하고 정확하면서도 본문의 풍성한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투고 일자: 2010. 7. 30, 심사 일자: 2010. 9. 13, 게재 확정 일자: 2010. 9. 20)

<주요어>(Keywords)

추론적 접속사, 히브리서의 접속사, διό의 번역, οὖν의 번역, ὅθεν의 번역, 히브리서 11:19.

inferential conjunctions, conjunctions in Hebrews, translation of διό, translation of οὖν, translation of ὅθεν, Hebrews 11:19.

<참고문헌>(References)

김창락, “이유·근거·증거·증명을 뜻하는 접속사의 번역 문제”,「성경원문연구」5 (1999), 57-79.

레인, W.,『히브리서 9-13』,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2007.

유은걸, “국역 성경의 헬라어 분사 구문 처리에 관한 소고-『새번역』히브리서를 중심으로”,「성경원문연구」25 (2009), 96-110.

정창욱, “누가복음에 사용된 헬라어 현재분사의 이해와 번역”,「신약연구」8:4 (2009), 611-638.

Attridge, H. W., *The Epistle to the Hebrews*, Philadelphia: Fortress, 1989.

Baur, W.,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F.W. Danker, rev.,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Blass, F., Debrunner, A., *A Greek Grammar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R. Funk, rev. a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Blass, F., Debrunner, A., and Rehkopf, R., *Grammatik des Neutestamentlichen Griechisch*, Goe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896, 17th ed., 1990.

Buchanan, G.W., *To the Hebrews/ and Epistles of James Peter, Jude*,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1972.

Calvin, J., *Commentarius in Epistolam ad Hebraeos*, Geneve: Librairie Droz, 1996.

Ellingworth, P., *The Epistle to the Hebrew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Eerdmans, 1993.

Kistemaker, S. J., *Exposition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 Herts: Evangelical Press, 1984.

Koester, Craig R., *Hebrew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York; London; Toronto; Sydney; Auckland: Doubleday, 2001.

Liddell, H. George & Scott, R., *A Greek-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1958.

Louw, Johannes P. & Nida, Eugene A., eds.,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y, 1988.

O'Brien, Peter T., *The Letter to the Hebrews*, Grand Rapids; Cambridge: Eerdmans, 2010.

Westcott, B.F., *The Epistle to the Hebrews: The Greek Text with Notes and Essays*, Grand Rapids: Eerdmans, 1980.

<Abstract>

Translation of Three Inferential Conjunctions in Hebrews

Prof. Chang-Wook Jung
(Chongshin University)

Six inferential conjunctions occur in Hebrews and the three of them are most frequently used; οὖν, διό, ὅθεν. The first particle is employed most generally in the NT, four hundred and ninety-nine times, while the second and the third conjunctions fifty-three times and fifteen times respectively. Their frequency is peculiar in Hebrews as the first conjunction οὖν takes place in twelve places whereas the second and the third particles διό and ὅθεν in nine and six places respectively. The occurrence of the first particle οὖν is less than that of the sum of the second and the thirds particles. The following question thus arises: Why are the three inferential conjunctions adopted in this way? Does each of them display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each other? Otherwise, are they adopted as such simply in order to avoid the monotony of using only one conjunction? How are they understood and translated by translators of Korean Bibles and English Bibl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ach of the conjunctions involves a subtle nuance, which has to be expressed in the process of translation. The conjunctions are ignored in some instances of Korean and English versions, which should be corrected. The conjunctions have to be translated more variously and more accurately without being omitted. This effort will make the meaning of the text clear.